

“원문 충실·이해도 높아야 좋은 번역”

이해 쉬운 역경체 개발 가치 높아

중국의 경전 번역 체계

박상준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중국의 역경사는 번역가를 중심으로 구분되며 구마라습 이전의 고역, 구마라습 이후부터 현장 이전까지를 구역, 현장 이후의 신역으로 나뉜다. 특히 신역(수·당·송나라)시기는 역경사업의 전성기로 양·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때라고 볼 수 있다.



<개원석교록>에 의하면 이 시기 동안에 경전 272부 2159여권이 번역됐으며 이로써 경음론의 번역이 거의 완성되었다. 당대의 번역가로는 현장·의정·불공을 들 수 있다.

남북조 시대에는 역경원 제도가 만들어졌고 9가지 번역관(필수: 범어와 한문에 능통한 역경사, 윤필: 한역본 문장을 부드럽게 손질하는 번역사, 교감: 번역 경전의 감수 등)의 직위가 마련되기도 했다.

중국의 경전번역 성과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번역문의 충실성과 외래어 음역 규칙, 역자의 수양 등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총 정리했으며 중국어와 범문을 결합하고 운문과 산문을 혼용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역경체를 개발한 점은 번역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

왕실 지지 속 엘리트 중심으로 전개

티베트의 경전번역 체계

안성두 (금강대학교 국제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티베트의 경전번역의 가장 큰 특징은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엘리트층 중심으로 그들을 위한 학문적 번역이다.



티베트에서의 범어불전 번역은 약 700년 이후로 보며 13세기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범어불전의 번역과정은 크게 초기전기파시기(8세기 말~9세기 중순)와 후기전기파시기(11세기 초~14세기), 고전적 체계화시기(14~16세기), 후기고전파시기(16세기 이후)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경전번역의 전성기는 초기전기파시기와 후기전기파시기로 보는 것이 유력설이며 초기전기파(8세기 말~9세기 중순)시기는 주로 유가행 중관파와 자립행 중관파의 논서가 번역됐고 후기전기파시기(11세기 초~14세기)는 자립행파와 귀류파 문헌의 번역이 주류를 이뤘다.

또한 티베트어 구문의 특성상 범어의 티베트어 번역은 비교적 원문에 가깝게 역경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티베트 경전번역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경전번역 ‘세계 각국의 경전 번역 실태 및 체계에 관한 연구’ 요지

‘가장 이상적인 경전번역은 어떤 것인가?’ ‘널리 읽히기 위한 경전번역인가 역경사업에 위한 번역인가?’ 경전연구소(이사장 돈연)는 우리나라의 경전번역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2월 25일 ‘세계 각국의 경전번역 실태 및 체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각국의 경전번역 실태를 파악해 우리의 역경시스템을 점검하고 역경사업의 모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최초의 학술발표회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발표자들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이해도가 높은 번역이 가장 이상적인 번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붓다자안따판, 학문적 용도로 활용

스리랑카의 경전번역 실태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스리랑카 경전번역의 출발점은 <팔리 삼장>의 싱할리 번역과 출판에 목적으로 1965년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스리랑카 불자회’의 설립부터다.



스리랑카 불자회의는 <팔리 삼장>의 역경작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역경분량을 설정하면 개별번역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다시 편집위원회와 편집대표가 심의 한 후 최고 편집위원회에 보고 후 출판하는 시스템으로 번역작업은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의 원활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팔리어에 능통한 스님들이 <팔리 삼장>을 싱할리로 번역하는데 33년이라는 긴 경전번역 시간이 소요됐다.

<팔리 삼장>의 번역본인 붓다자안따판은 한쪽 면에는 팔리 원문을 다른 한쪽 면에는 싱할리 번역본을 동시에 담고 있어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번역의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영어권 국가 불교연구의 기초자료

영국의 경전번역 실태

황순일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영국의 불교경전 번역사업의 핵은 1881년 리즈 데이비스에 의해 창립된 ‘팔리경전협회(Pali Text Society)’다.



1914년까지 23권을 찍은 그의 저서 <불교>는 영국에서 최초로 팔리어 경전들을 근거로 쓰여 졌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이 협회는 팔리어 경전, 논서, 주석서, 역사서를 포함해 거의 모든 팔리어 문헌을 모으고 편집해 로마자와 특수문자를 조합하는 형태로 출판하고 각각의 출판물에 대한 영어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00년대 후반 팔리 경전의 편집과 번역 작업은 개인에 의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조지 터너의 <마하바사>, 로버트 실더스의 <대반열반경> 등이 그것. 이 협회의 출판물은 연구용 자료로 초점이 맞춰져 출간됐는데 한계가 있지만 영어권 국가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다.

현재 이 협회는 그 동안 출간했던 책들을 개정·증보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중서와 전문서 명확히 구분

미국의 경전번역 실태

심재관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미국의 경전 번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번역의 다양성, 실용성, 실용성이다. 즉 일반인을 위한 경전번역 출판물과 학자를 위한 경전번역 출판물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것.



미국의 번역사는 1950년대를 전후한 쟈본(Zen Boom)과 1960년대 티베트 승려들에 의한 티베트 불교 경전의 번역기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전번역협회는 ‘BDK(Buddhist Dharma Center of Kyokai, 불교전도협회)’로 <대정신수대장경> 번역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 협회는 1992년까지 역자들로부터 1차본 139권 가운데 45권의 번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책명이나 한역자의 명칭을 영자로만 표기해 원래의 한문경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불교전문용어를 통일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협회 못지않게 개인이나 출판사들도 활발한 경전 번역을 하고 있다. 토마스 클러리의 <화엄경>, 스키즈의 <유마경>, 프란시스 루크의 <유식론서> 등이 그것이다.

정리=노병철 기자 sasamin@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2>

골프와 명상

현대불교신문 제565호에는 타이거 우즈의 탁월한 골프실력의 비결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이에 따르면 그 비결은 명상 습관에 있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위기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타이거 우즈 어머니가 태국 태생이고, 태국이 불교 국가이므로 불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능했지만 명상이 습관화 돼 있다는 것은 다소 놀라웠다.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골프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운동경기인 경우 불교에서 배운 명상이 경기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 골프계의 성장은 눈부시다. 골프장과 골퍼인구의 증가, 그리

데 최대한 효과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 마치 좁은 포환을 때어 돌릴 때처럼, 골퍼 클럽의 스윙은 클럽헤드가 가장 큰 원운동으로 공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골퍼가 어려운 운동인 이유이다.

가만히 있는 공을 맞추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아니 밤 먹듯이 골퍼만 치는 타이거 우즈도 어렵다고 하는 이유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골퍼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경향성이다. 보통 공을 치기 전, 2-3회 연습 스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습 스윙과 실제 스윙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연습 스윙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막상 공 앞에서

공치기 전 연습 스윙과 실제 스윙은 큰 차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 다른 것은 탐진치 때문

고 그에 수반되는 관련분야 시장규모가 커졌다.

또한 한국 여성 프로골퍼들은 세계 대회를 휩쓸고 있다. 5년전만 하더라도 사치로 여겨지던 운동이 서서히 대중화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골퍼의 인기는 대단하다.

‘골프과학’의 발전도 눈부시다. 공기의 저항을 뚫고 안정된 탄도를 가지기 위해서 공의 표면을 보조개(이름을 딴 풀이라고 한다)처럼 만드는 데 이것이 공기분자에 충돌하면서 골퍼공안이 가지는 놀라운 거리와 궤도를 가지게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공을 일정하게 맞추어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골퍼의 능력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골퍼 헤드는 원 운동(스윙)을 해야 하고, 손과 몸은 이 운동을 하는

자신의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호랑이에게 쫓기듯 서두르는 사람, 너무 힘을 주어서 공을 친 후 비틀거리는 사람, 땅을 쳐버리는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실 골퍼 스윙에 인생이 담겨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머리로 생각하고 공부했더라도 막상 현실에 부딪치면 탐·진·치의 위해 까맣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불교의 선이 우리의 입(경향성)을 얹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듯이다. 골퍼라는 운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아니 골퍼의 스윙에서 오래된 자신의 업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골퍼를 즐기는 불자의 모습이어야 할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쉽고 재미있는 마음공부” 멍텅구리 부처님



불영자광 지음, 338쪽, 값 9,500원

스승이 군대 가라 한다고 이미 제대하고도 또 입대한 멍텅구리 자광스님!

그 멍텅구리 스님은 말한다.

“나만 멍텅구리인가? 아름다운 비빈들과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쥔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평생 남의 밥을 빌어먹는 부처님도 멍텅구리다. 또 엄청난 재물을 보시고 탐과 절을 지어주겠다는 양무제를 물리치고 도적 떼가 들끓는 송산 골짜기로 들어가 9년 간 변변한 달마조사도 멍텅구리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묻는다. “내가 멍텅구리인가, 그대들이 멍텅구리인가?”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 비밀

금강경을 금강경으로 보지 말고, 전혀 새로운 눈으로 금강경을 보라!



이시우 편저, 348쪽, 값 13,000원

서울대 천문학자 교수로 지낸 한국 관측천문학의 개척자이며 한국과학기술원 원리의 정회원인 이시우 박사가 새문에서 사위국 기원사에서 금강경을 설했던 이후, 처음으로 풀어낸 금강경 안에 비장(秘藏)된 영의 비밀을 밝힌다. 이 비밀은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현대인이 등장할 때까지 깊숙이 감추어져 왔던지도 모를 일이다. 금강경은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天人之道)를 실현 불교를 대표하는 경이다.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로 인간의 도란 설명해 왔는데 이 책에서는 하늘의 도(天文)와 인간의 도를 최첨단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함께 설명하고 있다. (만년 실과 병화가 녹아 내리고 개량된 복구가 순식간에 마음을 삼키는 기상이 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인류의 큰 재앙으로 인간과 자연이 한 뿌리라는 불교의 연기사상을 한시 바빠 실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인류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티베트금강경

가 말 라 설 라 의 金 剛 經 廣 釋

저 거대한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고도 마음놓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나 물리적인 힘보다 앞선 것은 정신력이고 정신력의 근원은 바로 이 금강경에서 비롯된다. 금강경은 붓다 세존의 정안(正眼)이며 불법의 핵심이다. 북전(北傳) 대장경 가운데서 금강경만큼 널리 읽히는 경도 없다. 우리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인도 나란다 대학의 뛰어난 학승이자

티베트 불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가말라설라 존자의 논리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본다.

(그동안 ‘티베트대장경’ 속에 은밀히 간직돼 있던 이 책을 티베트불교학자 양승규 박사가 오랜 노력 끝에 처음으로 완역하였고, 책이름은 티베트대장경 안에 있는 금강경이라는 뜻을 줄여 ‘티베트금강경’이라고 했습니다.)

양승규 역 225쪽 값 9,000원